

# Merleau-Ponty의 有機體論

——『行動의 構造』를 중심으로——

金 弘 宇\*

## I

Maurice Merleau-Ponty는 1942년에 출판된 그의 초기 저작 『행동의 구조』<sup>(1)</sup>에서 3가지 점을 밝히고 있다. ① 有機體는 客觀主義者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自由롭다; ② 意識은 主觀主義者들의 주장보다 실제로 “덜” 自由롭다; ③ 따라서 객관주의 또는 주관주의는 유기체 또는 의식을 설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적실성을 갖지 못한다. 本稿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Merleau-Ponty의 논의들 가운데 특히 고전적 반사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 그가 발전시킨 有機體論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려는 데 있다.

## II

古典的 反射理論(classical reflex theory)에 따르면, 유기체는 하나의 정밀한 기계와 같다. 특정한 물리적·화학적 자극은 유기체의 고정된 부위에 위치한 수용기에 전달되며, 이 수용기는 고정된 회로를 통해 고정된 반응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눈의 망막은 상이한 공간적 위치에 따라 고정된 신경 회로와 연결되며, 또 고정된 운동근육과 연결된다. 만일 光線이 망막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망막—신경회로—운동근육 등 유기체내의 일련의 세 기관들 간에는 연쇄적 인과작용이 일어난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반사이론은 이와 같은 연쇄적 인과작용을 “순환적”(circular)이 아닌 “線形的”(linear)인 과정으로, 또는 “橫的”(transversal)인 것이 아닌 “縱的”(longitudinal)인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 때 자극 즉 광선은 유기체의 운동의 원인

\* 서울대 교수 정치학

(1) 본 논문은 『행동의 구조』가 출판된 지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논문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崔明 교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으로서 능동적 요인이 되는 반면 망막-신경회로-운동근육 등 유기체의 제 기관들은 전달된 자극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작용하는 “눈먼 기계” (blind mechanism)에 불과하게 된다(Merleau-Ponty, 1942:8-9; 30). Merleau-Ponty는 반사이론의 기계론적 입장을 보다 일반화시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상황은 열쇠를 열고, 단추를 누르고, 기계에 시동을 거는 요인으로서 만 개입한다. …동물은 마치 진짜 기계처럼 고정된 연결의 고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행동이 실제의 상황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문제되지 않는다.”(Ibid., 35) 뿐만 아니라 반사이론에 의하면 “물리적 원인들은 운동, 움동 그리고 공간적 배열 등과 같은 형태적 속성들(properties of form)을 통해 유기체를 자극할 수 없다. 물리적 현상의 공간적 또는 시간적 형태는 수용기에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이 남기는 것은 외적으로 서로 분리된 개개의 자극들의 연속적 흔적 뿐이다. 자극의 인자들은 점적인 속성들에 의해서만 작용할 수 있다.”(Ibid., 8)

Merleau-Ponty는 이상과 같은 반사이론을 위치결정론의 입장이라고 비판한다. 다시 말하면, 반사이론은 “기능”(function)이 아닌, “위치”(topography)가 모든 반응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위치결정론에 따르면, 유기체의 각 부위에 위치한 제 수용기들은 고유한 신경회로에 의해 특정의 운동 기관과 연결되며, 이러한 연결은 다른 기관에 의해 대체 되거나, 다른 기능으로 변경될 수 없는 “고정불변의 것”(solidarity)이다. 이런 점에서 반사이론은 철저한 “폐쇄회로의 원칙”(the principle of private pathways)에 입각한다(Ibid., 16). 뿐만 아니라 반사이론은 이른바 “항등성 가설”(constancy hypothesis)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항등성 가설”이란 동일한 자극은 동일한 반응을 산출한다는 가설, 바꾸어 말하면 특정반응은 반드시 특정한 자극과 일치한다는 가설이다(Ibid., 44). 그러나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실재에 비추어 이와 같은 반사이론의 주장들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예컨대 “폐쇄회로의 원칙”에 대해 Merleau-Ponty는 이렇게 말한다 :

…신경활동이란 본질상 지정된 특정 회로에만 제한될뿐 아니라, 기존의 몇몇 회로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극을 배분할 수 있고, 반사回路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경지배적 전체라는 개념(the idea of an innervation of the whole)으로 되돌아 오게 된다(Ibid., 32).

Merleau-Ponty는 “폐쇄회로의 원칙” 뿐만 아니라 “동일성 가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에 의하면, 동일한 자극에 대한 동일한 반응은 Goldstein의 “자체반사”(eigenreflexe)나 통제된 실험실의 예에서 보듯이 극히 예외적 현상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자극으로부터 다른 반응이, 또 상이한 자극으로부터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Ibid., 44). 예를 들면 “黃點”(macula: 망막에서 시력이 가장 좋은 부분)의 경우, 동일 자극에 대한 반응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눈집(orbit)에서의 안구의 위치, 몸과 머리간의 위치 등에 따라 때로는 “전면”, 때로는 “좌측”, 때로는 “우측” 각각을 유발한다(Ibid., 16). 이어서 Merleau-Ponty는 이렇게 말한다: “대상이 황점에 투영되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으로 또는 선명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와 반대이다. 즉 황점은 앞에 있다고 지각되는 것과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투영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Ibid., 142)

요컨대 Merleau-Ponty는 개개의 點的인 자극이나 자극의 위치가 반응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보는 위치 결정론에 반대하고 “형태”的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수용기들은 자극의 형태적 속성을 기록하는 성향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의 형태적 속성들은 반응의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극의 위치나 성질보다 더 중요하다.”(Ibid., 11) 적어도 그는 자극의 형태적 속성이 자극의 요소적 속성에 비해 2차적이라거나 객관성이 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Ibid., 102-133). 이제 이상과 같은 Merleau-Ponty의 비판에 대해 다음에 좀 더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자.

### III

Merleau-Ponty는 고전적 반사이론에 대해 대체로 7가지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이 움직이려는 근육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Ibid., 23).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다른쪽 다리 위에 꼬꼬 앉았을 때 슬개골(knee cap)에 가벼운 충격을 받으면 다리를 펴는 반면, 한쪽 다리만을 들고 있을 때, 동일한 자극을 받으면, 다리를 굽힌다. 또 성게의 다리를 자극할 경우 그 다리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반응도 달라진다. 즉 다리를 지면위에 뻗고 있을 경우, 성게는 자극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면 모든 다리를 수직으로 곤두 세우고 있을 경우, 힘의 중심축 쪽

으로 움직인다(Ibid., 22).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제 막 발생할 반사(impending reflex)는 이것을 종결 지을 근육의 최초의 상태와 함수 관계에 있다 (Ibid., 22). 몸의 움직임은 四肢의 처음 위치에 의존한다. 예컨대 굽기 반사에 있어 동일한 자극지점으로 손을 이동시키기 위한 근육 수축은 손을 오른쪽으로 펴고 있는가 또는 왼쪽으로 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Ibid., 28). Sherrington 역시 반사는 그에 선행하는 다른 반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Ibid., 23). 이에 대한 좋은 예로서 역반사(reflex reversal)를 든다(Ibid., 24). 즉 하나의 反射 다음에는 종종 逆反射가 뒤따른다(Ibid., 23). 여기서 逆反射는 그에 선행하는 反射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反作用”(strike back) 또는 “연속적 유도”(successive induction)라고 부른다(Ibid., 23;27).

둘째, 동일한 자극이라도 신체의 전반적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뇌하수체를 채취한 다음, 자궁의 작용을 관찰하면 임신여부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迷走神經(vagus nerve: 심장속도를 제어)을 자극하는 순간, 심장의 噎門(cardia)이 수축상태에 있는가 또는 확장상태에 있는가에 따라, 상반된 반응이 나타난다(Ibid., 23). 니코틴 투입 후 迷走神經을 자극하면 심장의 박동이 가속화된다. 뿐만 아니라 迷走神經과 交感神經(sympathetic nerve: 그 한 기능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함)의 반응은 체액의 상태(humoral state)에 따라 달라진다. 필로카린(pilocarpine)은 迷走神經의 자극제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交感神經을 자극한다(Ibid., 17).

칼슘은 일반적으로 맥박의 속도를 떨어뜨리지만,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의 경우(aortic insufficiency), 맥박의 속도를 가속화 시킨다(Ibid., 17). 소량의 아드레나린 투입은 혈관근육의 긴장도에 반비례하여 혈압을 떨어뜨린다. 반면 위장근육이 이완되었을 경우, 아드레나린 투입은 긴장효과를 가져온다 (Ibid., 27). 콜레스테롤 과다증(cholesterinemia)의 경우, 아드레나린 반응은 유기체의 화학적 상태가 중성 또는 산성인 경우에만 나타난다. 유기체의 자율신경계는 화학적 이온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또 전해질과 아교질 분자간의 비율에 따라 좌우된다. 이 비율은 다시 세포벽 전압(cell wall potential)에, 그리고 세포벽 전압은 식물적 신경계에 의존한다(Ibid., 17).

迷走神經의 절단은 피질의 자극전달時值(chronaxie) 즉 자극이 전달되는 데 요하는 시간에 변화를 주며, 식물적 신경계에 대한 약효작용은 말초감각

기관의 자극전달時值에 변화를 준다. 뇌의 손상은 혈압, 맥박 그리고 동공의 신경지배(innervation)에 변화를 가져온다. 소뇌와 대뇌는 모든 반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척추활동은 대뇌와 소뇌에 의존한다. 뇌를 제거한 동물의 반사와 그렇지 않은 동물의 반사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정류의 문어에서는 대뇌신경절과 중추신경절을 제거하면, 자극역(閾)의 값(threshold) 즉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 강도의 범위가 높아지던가 아주 낮아지며, 이에 따라 다리놀림이 달라지고 계를 잡고 삼키는 반사가 불규칙해진다 (Ibid., 18).

개구리의 내장파열은 모든 반사를 중단시키거나 변형시킨다. 특정 반사에 주의를 집중할 경우, 반사억제의 효과를 가져온다. 피로와 최면상태는 반사를 弱化시키거나 또는 強化시킨다. 발바닥에 가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은 추체로(pyramidal tracts) 손상 이전과 이후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추체로 손상 이전에는 발바닥 굽힘반사가, 추체로 손상 이후에는 등펴기 반사가 각각 일어난다(Ibid., 18). 또 Weber의 법칙에 따르면, 동일한 자극도 유기체가 휴식상태에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또 동시에 제시되는 다른 자극 또는 선행하는 자극내용의 여하에 따라, 유기체의 반응을 유발할 수도 또는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Ibid., 21, 26).

셋째, 유기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극의 “속성”(property)이 아니라, 자극의 “형태”(form)이다. 즉 자극의 작용은 자극의 요소적 속성보다도 그 것의 공간적 배열, 율동, 강도의 리듬(the rhythm of the intensities of the stimulus) 등과 같은 자극의 형태에 의존한다(Ibid., 10). 따라서 자극의 내용이 변하더라도 그것의 공간적-시간적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같은 자극일지라도 그 형태적 속성이 변하면 반응 역시 변한다. 다시 말하면, “자극이 반사유발적으로 되는 것은 결코 개체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로서가 아니다 ; 그것은 언제나 하나의 구조로서이다(Ibid., 103).” 이런점에서 Merleau-Ponty는 신호란 하나의 배열된 순서(configuration)에 불과하다고 본다(Ibid., 106). 왜냐하면 “전체의 순서야말로 전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게 자극으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Ibid., 109).

이어서 Merleau-Ponty는 자극의 형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가지 예로서 설명한다. 첫째로 고양이의 컷바퀴는 여기에 가해지는 자극

의 형태에 따라 5개의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sup>(2)</sup> 또 가시뱀 (spinal snake)은 단순한 피부 접촉에 대해 굳어지는 반면, 보다 강한 피부자극에 대해서는 이와는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수용기를 자극함으로 생기는 반응과 신경회로를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반응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Ibid., 11).

동일한 자극이라도 그것이 단일한 요소로서 제시되는가 또는 다른 자극과 함께 제시되는가, 또 함께 제시될 경우 어떤 순서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Ibid., 54-55). 예컨대 빛-고음-저음-접촉은 반사를 유발하는 자극인 반면, 빛-저음-고음-접촉은 반사를 유발하지 않는다. 또 동일한 고음을 처음에는 약하게 다음에는 강하게 낼 때 반사가 일어나는 반면 그 순서를 바꾸면, 즉 처음에는 강하게, 그 다음에 약하게 낼 때, 반사를 일으키지 않는다(Ibid., 55). Merleau-Ponty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反射構造說”(composition of reflexes)의 이름으로 자극의 제시 순서에 따른 상이한 반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Ibid.,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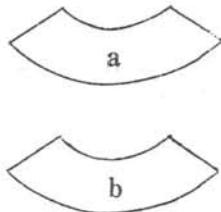


Figure I

두개의 형태중 작은 것만 고르도록 훈련된 닭에게 Figure I을 보여주면, 꽤 관적으로는 비록 두 형태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위치의 차이때문에 작게 보이는 것, 즉 “b”를 택한다(Ibid., 108). 약한 회색 G-1과 짙은 회색 G-2 중 약한 회색 G-1을 고르도록 훈련된 닭에게 G-1보다 더 약한 회색 G-0를 G-1과 함께 보이면, G-0를 택한다. 이것은 특정한 물리적 실체인 G-1에 대해 반사유발력이 작용하지 않고 “보다 약한 회색”이라는 특정한 “구조”에 대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Ibid., 106).

검은 색깔의 물건을 고르도록 훈련된 동물에게 같은 물건을 수천배 밝은 곳에 놓아둘 경우, 계속 같은 물건을 택하는 반면, 같은 물건의 색깔을 단지 2%만 다르게 변화시켜도 이 물건을 택하지 않는다(Ibid., 108). 문어를

(2) 본고의 12쪽에 있는 고양이의 예를 참조

큰 그릇에 대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正反應을, 작은 그릇에 대해서는 否反應을 습득시킨후, 작은 그릇 하나만을 설치하면 계속해서 작은 그릇안으로 들어간다(Ibid., 55-56). 고도의 숙련된 타자수라도 키보드의 날자를 찾도록하면 잘 찾지 못한다(Ibid., 124).

지능이 낮은 원숭이나 침판지의 경우, 장대나 갈퀴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이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갈퀴가 과일이 보이는 쪽으로 놓여있고, 손잡이가 원숭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또는 과일과 장대를 침판지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놓을 경우, 이들 갈퀴나 장대는 과일을 따는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나 갈퀴나 장대를 과일로부터 먼 거리에 놓을수록 그들의 도구적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물리적 실재로서의 나무만으로는 과일을 따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나무가지가 도구로 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상황의 특정한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나무가지의 물리적 속성만을 강조하고, 이것이 놓인 특정한 위치를 도의시한 경험주의 심리학자들과 선협주의 심리학자들(intellectualist psychologist)<sup>(3)</sup>을 모두 비판한다. 즉 이들은 “나무가지가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길이, 넓이, 견고성 등과 같은 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극으로서의 특정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속성들이 행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처럼 추론했다.”(Ibid., 114)

형태주의심리학에 의하면, 동일한 색깔도 그것이 대상이 되느냐 또는 배경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 즉 청색 원판을 장미빛 벽 위에 걸어 놓았을 때 [즉 장미빛이 청색의 배경색이 될 때]와 이것을 장미빛 指環 중심부의 빈 공간에 놓았을 때 [즉 청색이 장미빛의 배경색이 될 때]의 원판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Ibid., 14). 또 같은 색깔을 육안으로 직접 볼 때와 특별한 장치, 예컨데 스크린의 틈을 통해서 볼 때의 색깔이 각각 다르게 보인다. 일례를 들면, 육안으로 볼 때 투명하면 표면이 스크린의 틈을 통해 볼 때, 회색빛으로 변한다(Ibid., 82;88). 반은 녹색이고, 반은 적색인 배경에 회색빛 지환을 그릴 경우, 지환을 하나의 형태로 볼 때와 두 개의 반원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볼 때의 색깔이 각각 다르다. 전자 즉 하나

(3) Merleau-Ponty에 의하면 선협주의가 극복하려는 “경험주의 요소들 중의 일부는 항상 선협주의 속에 남아 있다—억압된 경험주의의 형태로” p.187.

의 지환으로 볼 경우, 지환의 빛은 회색으로 보이는 반면, 후자 즉 두개의 반원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볼 경우, 반은 적색으로 또 반은 녹색으로 보인다(Ibid., 83). 등근 원판을 배경과 떨어진 평면으로 볼 경우, 色對比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배경과 같은 평면에 놓인 것으로 볼 경우, 色對比현상이 나타난다(Ibid., 103).

부분에 대해서만 학습한 피험자는 전체 내에서 같은 부분을 보는 순간, 이를 같은 것으로 파악하지 못한다(Ibid., 103). 같은 韻이라도 두개의 서로 다른 멜로디에서는 같다고 지각되지 않는다. 반면 하나의 멜로디를 移調시킬 경우, 비록 모든 韵이 다르더라도 같은 멜로디로 지각된다(Ibid., 87). 또 韵의 절대적 음색 (absolute tone of the sound)이 바뀌더라도 韵의 강도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같은 반응을 일으킨다(Ibid., 55).

평지를 걷는 보행자가 나무뿌리에 발이 채인 경우와 산길을 내려오는 등 산책이 걸음을 헛딛어 땅바닥에 발을 심하게 부딪힌 경우, 자극을 받은 발의 반응은 각각 다르다. 전자 즉 보행자의 경우, 발의 반사는 퍼는 반사인 반면, 등산객의 발은 수축반사를 보인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반응의 차이는 “자극의 전체적 이용”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반응의 차이는 자극 자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이 나타나는 전체적 상황”的 차이에 기인한다. Merleau-Ponty는 이 점을 부연하여 “자극이 유기체에 대해 가지는 의미”的 차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자극에 대한 상이한 반응은 “자극이 나타나는 의미와 관계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개의 자극이 설사 물리적-화학적 성분에 있어서 서로 다를지라도 유기체에 대해 동일한 의미를 지닐 경우,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Ibid., 45).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진정한 의미의 자극(the adequate stimulus)은 유기체와 유리되어 그 자체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극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생리적 또는 생물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필연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물리-화학적 인자”라기 보다는 “물리-화학적 인자”를 다만 물리적 “계기로 삼는 자극의 특정 형태”(Ibid., 31) 또는 자극의 “의미”이다. Merleau-Ponty는 이것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한다 :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은 그 자극이 …유기체에 대해 갖는 의미에 의존한다(Ibid., 147).

…[유기체의] 반응은 자극의 물리적 속성보다 생존활동에 미치는 의미(vital significance)에 의존한다(Ibid., 161).

여기서 Merleau-Ponty가 말하는 자극의 “형태” 또는 “의미”와 관련하여 특히 4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응은 자극의 형태 또는 의미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유기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전류, 멜로디, 비누방울, 물 위에 뜬 기름 그리고 전화기의 자동교환장치에서도 발견된다. 일례로 전화기의 자동교환 장치의 경우, “Oberkampf”와 같이 다이얼 “o”를 첫번째로 돌릴 때와 “Botzaris”와 같이 두번째로 돌릴 때의 “o”的 작용은 각각 다르다. 또 “b”的 경우, “o” 앞에 오느냐 또는 그 다음에 오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달라진다(Ibid., 14).

(2) Merleau-Ponty가 말하는 “형태” 또는 “의미”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기체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형태” 또는 “의미”를 뜻한다. Merleau-Ponty에 의하면, “반응을 구성하거나 지각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다. 지각된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객관세계가 아니다.”(Ibid., 88) 그것은 유기체이다. “유기체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수용기에 산재해 있는 자극을 수렴하여, 이들에게 리듬, 형태, 상대적 強度 등과 같은 국소자극의 전체적 형태(the global form of local stimulus)의 신체적 실재(a bodily existence)를 부여한다(Ibid., 31).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중추신경계통”的 능동적 기능이다. “조정 중추로 불리우는 大腦영역의 기능은 말초기관의 기능과는 그 형태가 전연 다르다. 대뇌의 활동은 행동의 구조, 조직, 배열 등과 관계된다.”(Ibid., 75) 대뇌는 “이미 만들어진 특정 행동에 대한 단순한 허용이나 금지”가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 그 자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Ibid., 18). 이것은 “물적 토대가 상이한(materially different) 운동에 대해 동일한 타입의 형태, 동일한 가치표현, 동일한 의미를 부여”한다(Ibid., 72). 이런 점에서 대뇌는 “이미 만들어진 혼적들의 저장소가 아니다”; 그보다는 “지각과 운동의 구조적 속성이 다듬어지는 곳”이다(Ibid., 85). 여기서 Merleau-Ponty는 중추신경의 “조정”이라는 말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태 또는 기능적 구조의 형성”이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Ibid., 87-88).

한마디로 중추신경계는 유기체의 전체적 像이 다듬어지는 곳이며, 또 이

터한 像에 따라 유입된 운동자극을 배분 조직하고, 굽히고 펴는 반사의 비율을 결정하며, 자극, 자각, 운동, 행동의 “형태” 또는 “의미”를 구성하는 곳이다(Ibid., 18;20;21;23;30). 특히 중추기관이 구성하는 자극의 “형태” 또는 “의미” 속에는 “유기체의 생존적 요구”(the vital necessities of the organism)가 표현된다고 본다. 이런 뜻에서 Merleau-Ponty는 “자극이 결코 외적 작용에 대한 수동적 기록이 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유기체의 객관적 규범(the descriptive norms of the organism)에 실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다듬는 작업(elaboration)”으로 규정한다(Ibid., 25;28).

(3) Merleau-Ponty가 말하는 자극의 “형태” 또는 “의미”는 관념적-추상적 “형태” 또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아직은 칸트적 대상이 아니다.”(Ibid., 224) 이것은 유기체의 반응을 유발하는 생리적-생물적 “형태” 또는 “의미”를 가리킨다. 이것은 다양한 물질 존재에 의해 표현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물질 존재의 한 편린 가운데”(in a fragment of matter) 자리잡고 있는(Ibid., 209), 따라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고, 단질 수 있고, 또는 들을 수 있는 “체화된”(embodied) 존재이다. Merlean-Ponty는 이렇게 말한다: “형태란 각 구성요소들의 감각적 값이 전체 속에서의 기능에의 해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 변화하는, 볼 수 있고 또는 들을 수 있는 배열이다.”(Ibid., 168) 또는 “감각적 전체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는 이미 그 안에 접착되어 있는” 의미이다(Ibid., 211). 이런 뜻에서 “형태의 개념은 특정한 자연적 전체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속성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Ibid., 51)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고(Ibid., 173), 어떤 사람의 얼굴표정에서 그의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Ibid., 155). Merleau-Ponty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체화된 “형태” 또는 “의미”的 개념은 애초에 “형태주의심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화 되었다. 그들은 “관념과 존재가 구별될 수 없도록 결합되고, 또 이들이 [선험적이 아닌] 우연적인 배열을 통해 물질 존재가 우리의 면전에서 의미와 초보적 수준의 명료성을 갖기 시작하”는 “구조”的 개념을 제시하였다(Ibid., 201-207).

그러나 다른 한편 Merleau-Ponty는 형태주의심리학자들과는 달리 자극의 “형태” 또는 “의미”가 경험적 사실들로 환원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경험적 사실이란 “형태” 또는 “의미” 그 자체이기보다는 이것이 존재할 수 있는 “조

건”으로서, “존재”를 대신할 수 없다. Merleau-Ponty의 표현대로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한다는 사실”간에는 “필연적으로 의적”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Ibid., 164;206). 그러나 어떠한 의적 사실에서도, 또 이들을 아무리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형태” 또는 “의미”를 도출할 수는 없다(Ibid., 171). 이런 까닭에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기본적인 반응조차도…이러한 반응이 구체화되는 기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활동에 미치는 의미(vital significance)에 따라 분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Ibid., 149).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행동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형태” 또는 “의미”를 경험적 사실로 환원시킬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경험적 사실들을 “형태” 또는 “의미”的 관점에서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만약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가 사춘기로부터 성년기로 이행될 때 그 배후의 무수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들을 기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의 지속으로 보기 힘든 일련의 연속적 현상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발전적 진화(anagenesis)나 퇴행적 진화(catagenesis)와 같은 전형적 ‘기능들’ 또는 ‘과정들’의 리듬은 성장 또는 연륜을 규정하는, 생리적 현상이며, 또 이들과 관계된 화학적 반응들은 이러한 기능들이나 과정들을 다방면에서 조건지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記述만으로 그칠 경우] 이러한 전형적 ‘기능들’이나 ‘과정들’이 고유의 형태나 개별성을 잃게되어, 마침내 나이와 더불어 겪게되는 특징적 변화들마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총체적 微分子수준의 분석(a total molecular analysis)은 유기체의 기능적 구조를 특징이 없는 미분화된 물리-화학적 반응의 덩어리로 환원시킬 것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를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응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가운데 존재하는 변화의 진로를 추적해야 하며, 일단의 현상이 공통된 의미를 갖도록, 따라서 예를 들면 ‘동화현상’으로서 또는 ‘생식기능’의 한 요소로 보이도록 관절을 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 파악한 일련의 특정한 사건들이 관찰자에게 성장 또는 성년기와 같은 유기체의 발전 ‘단계들’로 구별되도록 관점을 택해야 한다. 특정의 분화된 현상들을 실제의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분리시켜, 이러한 현상을 가운데 포괄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를 속에 표현되어 있는 관념으로 묶어야 한다.(4)

(4) pp.151-152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구조는 물리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단순한 사실적 구조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원칙 안에 존재하는 구조”라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 “…물리적 체계의 통일성이 상관관계의 통일성이라면, 유기체의 통일성은 의미의 통일성이다. …생명현상은 의미에 의한 조정이라는 새로운 조정에 의해 접근가능하다.” pp.155-156; 이와 같은 Merleau-Ponty의 입장은 김재권 교수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와 대비시켜 볼 수 있다. 김재권 교수는 “정신은 실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일단 Merleau-Ponty와 유사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김 교수는 이렇게

4)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반응이 자극의 개별적 속성보다는 그 형태적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Pavlov의 조건반사이론을 비판한다. Pavlov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소리 S, 빛 L, 고기분말가루 M과 분비된 개(犬)의 타액방울 수는 다음과 같다(Merleau-Ponty, 53). 즉,

$$\begin{array}{lll} L=10 & L+M=10 & L+S+M=10 \\ M=4 & & S+M=4 \\ S=0 & & L+S=0 \end{array}$$

그러나 Merleau-Ponty는 이러한 실험결과들간에는 개별적 자극들의 산술적 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L+S+M=10$ 은  $L(=10)$ ,  $S(=0)$ ,  $M(=4)$ 의 각각의 합과 다르다. 이것은  $L+S=0$ 이나  $L+M=10$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L$ ,  $L+S$ ,  $L+M$  그리고  $L+S+M$ 의 “L”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이런 점에서 별개의  $L$ 로 보아야 한다는

---

말한다: “정신작용이 어떤 물리질적 영혼이나 경령 속의 사건이 아니라 물리적 세계 …속의 사건이나 상태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정신의 위치”, 『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 : 한 민족 철학자 대회 1991 대회보 1』, pp. 175-176) “우리는 정신적 속성을 보다 복잡한 물리적 구조에 귀속시킨다.” ; (김재권, 1991:180) “정신적 속성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화 된다.” ; (김재권, 1991:183) “모든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으로 실현된다.” (김재권, 1991:185).

다른 한편 김 교수는 Merleau-Ponty와는 달리 정신의 “인과성”과 “환원주의”를 주장한다. 김 교수에 의하면 “실재적이라는 것은 인과적인 힘을 갖는 것이다. …실재적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물이 세계의 인과적 구조…의 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어떤 사물이 존재한다 해도 그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실재론과 정신의 인과작용은 아마도 동반관계에 있는 듯하다; 한쪽이 없이는 …다른 쪽이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작용의 실재를 믿는 한, 우리는 우리의 정신작용이 세계의 인과적 그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신적 인과작용 없이는, 정신작용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김재권, 1991:178)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인과론으로부터 환원주의로 이행한다. 김 교수에 의하면, “과거 삼십년 동안 서양 철학에서는 환원주의에 대한 공포가 있어 왔다.”(김재권, 1991:188) 그러나 김 교수는 “환원주의야 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김재권, 1991:181) 그는 “체계의 물리적 상황에 의해 정신작용이 결정된다”는 명제야 말로 “근대의 과학적 세계상의 기저를 이루고 실재에 관한 지배적이고 형이상학적 도식”이라고 주장한다. (김재권, 1991:183)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장하려는 것은 비환원주의 하에서는 정신적 인과작용의 가능성 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 (김재권, 1991:184) “환원주의 하에서는 정신적 인과작용은 물리적 인과작용의 특수한 경우”에 불과하게 된다. (김재권, 1991: 187)

것이다. 왜냐하면 각 자극의 기능은 다른 자극과의 관계 즉 그것의 “형태” 또는 “의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Merleau-Ponty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기술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극의 운명을 판가름짓는 것은 유기체의 전체적 상태와의 관계, 그리고 그 자극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 작용하는 자극과의 관계이다(Ibid., 15).

Merleau-Ponty가 보는 有意味한 자극 즉 유기체의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란 개별적 자극의 고유한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극들의 “전체 그 자체”이다(Ibid., 55). 여기서 Merleau-Ponty는 단순한 “물리적-화학적” 인자로서의 “자극-그-자체”(stimulus-in-itself) 또는 “지리적 환경”(geographical environment)으로서의 자극과 유기체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 또는 “행태적 환경”(behavioral environment)으로서의 자극을 각각 구별하고, 후자를 특히 “유기체에-대한-자극”(stimulus-for-the-organism)이라 부른다(Ibid., 103;129). 결론적으로 Merleau-Ponty는 Pavlov의 조건반사이론이 “유기체에-대한-자극”이 아닌 “자극-그-자체”만을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Pavlov의 이론이 “하나의 상상적 생리학”(an imaginary phusiology)에 불과하다고 공격한다 :

…Pavlov는 그가 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하나의 상상적 생리학에 불과하다. 또 그것은 어차피 그럴 수 밖에 없다. 가장 완벽한 과학적 정신에 의해 추진된다고 보여지는 생리학적 방법이 가장 많은 추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어느 것에 비해서도 적절성이 가장 적다 (Ibid., 59).

#### IV

넷째, Merleau-Ponty는 고전적 반사이론이 견지해온 “신경부위의 局域化”(localization)에 반대하고, 신경계의 기능은 “전체적”(global)이라고 주장한다 : “신경계에서는 오직 전체적 사건만이 존재한다. 비록 신경계의 일부분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이러한 분리 자체가 기능적 현상이다. …신경계의 통일성은 …신경기능의 객관적 특성이다.”(Ibid., 50-

51;207) 물론 그는 대뇌의 피질에 위치한 “자극수용표면”(receptive surface)에서는 구심신경과 원심신경이 1:1의 대응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Ibid., 61;85). 그러나 色視覺中樞의 존재를 부인한 Piéron을 예로 들면서(Ibid., 19), 중추부위의 국역화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시작중추부위를 색감지부위, 형태감지부위, 그리고 빛감지부위 등으로 국역화시키거나, 또 일반언어像으로부터 시작언어상을 구분하고 혹은 각 개별언어상을 감지하는 부위 등 중추신경을 국역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Ibid., 71;74-76;204-206).

일반적으로 말해서 “행동의 조건은 중추부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말초기관의 경우처럼 신경물질(nerve substance) 자체 가운데서 발견되는 경우보다, 전체적 기능의 질적 변화양식 가운데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Ibid., 92) 이 말은 중추부위로 갈수록 “신경기능을 點的으로 위치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Ibid., 155). Merleau-Ponty는 이점을 다시 부연하여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어떠한 [신경] 기능도 위치에 얹매어 둘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영역은 전체적 활동의 맥락 속에서만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Ibid., 207)

Merleau-Ponty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Goldstein과 Boumann-Grunbaum의 환자를 듣는다. 이들은 손상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前者 즉 Goldstein의 환자의 경우, 뇌의 후두엽에 박힌 과편으로 鳥距溝外 視覺領域(extra-calcarine optic region)이 손상된 데 반해, 後者 즉 Boumann-Grunbaum의 환자의 경우, 뇌의 左前葉이 손상되었다. —동일한 구조적 고란현상 즉 대상과 배경의 구조적 교란현상이 나타난다.<sup>(5)</sup>

다섯째,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수용기의 반응구역은 해부학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Ibid., 84;88). 이것은 Sherrington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Sherrington은 “긁기반응”(scratch reaction)에 관한 연구에서, 반사유

(5) p.66.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병리적 증상은 환경으로부터 제기된 물음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이라는 것, “증후군의 특별한 유기체에 대해 제기되는 물음의 차이에 따라 변”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손상부위(lesion)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증상은 항상 마음의 기대와 일치한다.”(p.63) 따라서 설사 “중추신경내의 손상부위가 다르더라도 병의 임상유형은 거의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p.68) 요컨대 Merleau-Ponty가 주장하는 것은 “병은 행동의 내용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구조와 관계되며, 이런 의미에서 병은 관찰되는 그 무엇이기보다는 오히려 이해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다.”(p.64)

발구역의 범위가 날씨와 주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수용기의 반응구역은 자극의 강도나 빈도 또는 자극시간의 長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고양이의 귓바퀴에 점차 강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면, 처음에는 목을, 다음에는 귓바퀴와 같은 쪽(즉 자극을 가한 귓바퀴가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의 앞발, 그 다음에는 같은 쪽 뒷발을 움직이고, 그 후에는 꼬리와 몸통의 근육이 수축되며, 그 후에는 귓바퀴의 반대 쪽 앞발의 순으로 움직인다(Ibid., 25).

고전적 반사이론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자극의 확산으로 설명하였다. 즉 동일한 수용기에 동일한 자극을 계속해서 가하면 자극이 초래한 신경흥분은 원래의 자극부위를 중심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放散(irradiation)이라 부른다. 그러나 Merleau-Ponty는 이러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모든 반사는 자극과 억제 간의 일정비율을 나타내며, 자극이 계속되고 그 강도가 증가됨에 따라, 자극과 억제간의 비율이 새로운 비율로 바뀌기 때문이다(Ibid., 21-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극과 억제간의 비율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다(Ibid., 22;25).

Merleau-Ponty는 수용기의 반사구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유기체가 실험실과 같은 인위적 상태에 있거나 또는 病的 상태와 같은 극히 예외적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의 同側伸筋反射(ipsilateral extension reflex) 수용기가 고정되는 것은 延髓(medulla)를 횡단 절개한 이후부터이다(Ibid., 15). 또 “사람의 눈의 동공반사를 검사할 경우에도 피험자가 실험자에게 자신의 눈을 전적으로 내밀기고 난 연후에야 비로소 일정 자극에 대한 반응이 거의 규칙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성이 일상생활의 활동적 상황에서도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Ibid., 45-46;48)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실험실 내의 유기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물학적 실재인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Ibid., 151). 그는 특히 “반사”(reflex)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에 의하면, “반사는 擬人化에서 비롯된 착각”(anthropomorphic illusion)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반사는 살아있는 존재의 기본적 행동을 특징짓기 보다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실험적 장치를 특징짓는 비정상적 분리작용의 결과이던가 아니면 개체 발생과 계통발생의 후기 단계에 나타나는 加工的 활동(luxury activity)이다. 말하자면

반사는 擬人化에서 비롯된 착각(anthropomorphic illusion)일 수는 있으나 동물 행동의 구성적 요소로는 간주될 수 없다. 그렇다고 반사가 단지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Sherrington은 과오를 범하고 있다. 반사는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특정의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행동의 특수한 경우를 지칭한다. 그러나 반사가 생리학의 기본 대상인 것은 아니다(Ibid., 45-46).

여섯째, “하나의 유기적 조직”(an organic substrate)은 고전적 반사이론의 주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며(Ibid., 16),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Ibid., 16;17). Merleau-Ponty에 의하면, 유기체는 구조적으로 遠心路(efferent ways)에 비해 求心路(afferent ways)가 5倍數 많다. 이 때문에 遠心路와 求心路간에는 1:1의 대응관계가 적용될 수 없으며, 결국 하나의 원심로는 하나 이상의 구심로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Ibid., 16).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Sherrington은 원심기관내에 “최종공용통로”(final common segment)가 존재하며, 이로 말미암아 “동일한 신경조직이 질적으로 다른 반응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Ibid., 16). Merleau-Ponty는 그 전형적 예로서 Marina의 移植實驗을 듣다. 즉 원숭이 암구의 내부근육을 외부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섬유에 연결하고, 외부근육을 내부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섬유와 연결시킨 다음 암실에 넣으면, 원숭이는 광점을 향해 암구를 정확하게 움직인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한 결과가 다른 수단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한다(Ibid., 35;38;48).

Merleau-Ponty가 말하는 이와같은 현상 즉 “다른 수단에 의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은 유기체의 근육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자를 흑판에 쓸 때와 紙面 위에 쓸 때의 근육운동은 상이하다. 또 큰 글자를 쓸 때와 작은 글자를 쓸 때, 빨리 쓸 때와 천천히 쓸 때, 힘을 주어 쓸 때와 힘을 주지 않고 쓸 때, 팔의 자세를 이렇게 할 때와 저렇게 할 때, 紙面(또는 흑판)의 오른쪽에 쓸 때와 왼쪽에 쓸 때, 위에 쓸 때와 아래에 쓸 때에도 각각 상이하다. 그러나 필적은 동일하다(Ibid., 36).

이와 유사한 예로서 오른손으로 목표물을 가리키게 한 다음, 눈을 가리고 왼손이나 머리로 같은 목표물을 가리키게 할 경우, 목표물의 지시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눈을 가리고 뒷걸음으로 일정 거리를 가게한 다음, 다시 앞으로 가게 하면, 똑바로 걸어서 가나 갈지자(之)로 걸어가나, 큰 폭으로 걸어가나 작은 폭으로 걸어가나, 걸은 거리 만큼 되돌아 간다(Ibid., 29-30). 연

필을 쥐고 있는 어린 아이의 손을 다른 위치에 갖다놓더라도 다시 손을 입 안으로 가져간다(Ibid., 36). 여기서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기능이 前提 없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흡사하게 수행된다고 본다(Ibid., 30).

Merleau-Ponty에 의하면, 유기체의 학습과정은 “동일한 결과가 다른 수단에 의해 달성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에 해당된다. 그에 의하면, 학습과정은 “시행착오”와는 다르다. 설사 시행착오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학습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Ibid., 100). 또 학습은 “두 개의 개별적 실체 간에 수립된 상관관계도 아니다.”(Ibid., 99) 학습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일한 물것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른 수단에 의해 동일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획득이다. 따라서 학습의 성과는 동일한 부류 또는 형태에 속한 일련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적성”(aptitude)의 소유로 집약된다. Merleau-Ponty는 몇 가지 예로서 이와 같은 학습과정을 설명한다. 그 하나는 끈을 당김으로써 음식을 얻도록 훈련된 고양이의 경우이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발로, 다음에는 이빨로 끈을 당긴다. 또 붉은 색과 녹색의 차이를 학습한 어린 아이는 점차 색 일반에 대해 구분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또 Merleau-Ponty는 Buytendijk의 물고기 학습실험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한다 :

…이 동물이 적응한 것은 특정한 물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를 빌자면, 특정 종류의 속임수에 대해서이다. 효과적으로 획득된 학습은 이러한 시각적 자극(즉 불편과 고무의 고유한 색깔)과 이에 대한 회피반응 간의 연상으로 이해 될 수 없다. 이 동물에게 확립된 것은 고르는 능력,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다(Ibid., 96-97).

여기서 Merleau-Ponty가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동일한 결과의 달성이다. 이것 즉 “다양한 수단을 통한 동일한 결과의 달성”은 “경험” 일반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는 “경험”을 정의하는 데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유기체에 있어서 경험란 실제로 일어난 특정 운동의 기록과 보존(fixation)이 아니다; 그것은 의미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반응에 의해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 즉 적성을 수립함이다(Ibid., 130).

## V

일곱째, 유기체는 우연성(contingency)를 갖는다(Ibid., 208). 예를 들면 신경기관은 일정 強度이상의 자극에 대해서는 否反應을 나타낸다. 이것을 가리켜 “자극역”(threshold)이라 부른다. 그러나 Merleau-Ponty는 각 신경기관의 자극역이 고전적 반사이론의 주장(Ibid., 13;26;48)과는 달리 처음부터 고정된 값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연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임시변통적으로 결정된다(improvise)고 본다. 예를 들면 같은 색깔에 대한 자극역은 그것이 대상으로 되느냐 또는 배경으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Ibid., 168). 일반적으로 자극역의 값이 우연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Merleau-Ponty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어떠한 원칙도, 어떠한 과학적 방법의 긴급성도…여러 신경기관들의 자극역이 각자의 고유한 구조에 의해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었다는 생각을 강요할 수 없다. …자극역은 특정 신경기관의 변치않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생리학적 원자론의 용어로도 이 역(閾 : threshold)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예를 들면, 특정 기관의 긴장 반사는 이미 정해진 자극역의 값 이하에서만 발생하며, 일단 이러한 자극역의 값에 도달하게 되면 흥분은 자동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어 逆反射가 일어난다는 가정은 무엇으로도 뒷받침될 수 없다. 緊張器官의 순간적 자극반응의 값은 (만일 하나의 값을 정하기를 원한다면) 신경계의 일반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Ibid., 27).

Merleau-Ponty는 “자극역” 뿐만 아니라 “자극전달時值”(chronaxie) —자극이 전달되는데 요하는 시간—역시 특정의 중추기관이나 해부학적 구조 또는 국소억제기관(local inhibiting device) 등에 의해 불변의 값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유기체 전체의 신경-운동적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Ibid., 20). 그는 Lapique의 반사이론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한다 :

…두뇌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인접한 신경세포의 작용을 받아,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말초신경의 영향을 받아 자극전달시치를 변경할 수 있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괴질의 운동중추의 시치는 유통적이다. 이것은 그와 연결된 신체 부위가 더위지거나 차지거나 또는 전기자극을 받음에 따라 크게 변한다. …時值이론이 밝혀주는 것은 매 순간의 새로운 신경회로의 조직은 신경계의 고유기능이라는 점이다(Ibid., 48-49).

이상으로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극역이나 자극전달시치가 流動한다는, 말하자면 “반사의 우연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따지고 보면 “우연성”은 Merleau-Ponty의 『행동의 구조』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전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연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추신경의 “본유성”(innate)을 부인하는 Piéron의 견해가 소개된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Merleau-Ponty의 설명에 따르면, Piéron은 “해부학적 세분화(anatomical specifications)가 …기능에 부수되어 나타난 산물로 생각”한 대표적인 물이다. 특히 Piéron은 “조정증추가 본유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 발전으로부터 나온 [진화의] 산물로서, 여기에는 개인적 편차가 존재한다”고 본다 (Ibid., 15). Merleau-Ponty는 이러한 Piéron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조정 그 자체는 하나의 결과처럼 보인다. 즉 구조 또는 ‘형태’라는 현상의 결과처럼 보인다.” (Ibid., 79)

뿐만 아니라 “우연성”은 “代替現象”(substitution)에서도 발견된다. 유기체는 조직의 不具나 파괴 등으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反射回路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대체회로에 의해 종전의 반사작용을 계속한다. 여기서 Merleau-Ponty가 말하는 대체현상은 3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1) 대체반사는 다른 기관에 의한 동일기능의 수행으로, 반드시 “기능적 재조직”(functional reorganization)을 수반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서 斜視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시환자의 안구의 위치는 정상인의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과 다름없는 동일한 시각작용이 일어난다. 이것은 “당막지점의 공간적 값과 이것과 1:1의 대응관계에 있는 鳥距溝 영역내의 여러 지점들이 재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Ibid., 76)

그러나 Merleau-Ponty가 말하는 “기능적 재조직”的 가장 적절한 예로서 半盲症환자의 경우를 빼놓을 수 없다. 반맹증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망막의 절반이 빛에 대한 감지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따라서 일반인에 비해 그의 视界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르다. 반맹증환자는 시계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체적 시각이 불투명해 질 뿐이다. Merleau-Ponty는 시각이 이처럼 반감되지 않는 것은 망막내의 시신경이 재조직된 결과라고 본다:

…유기체는 눈의 기능을 재조직함으로써 질병으로 야기된 상황에 적응한다. 안구는 아직까지 빛의 자극에 노출되지 않았던 나머지 망막의 일부가 오른쪽 또는 왼쪽

으로부터 오는 빛의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인다. …마침내 새로이 형성된 망막의 中心窩(fovea)는 비록 그것이 전에는 빨간색과 녹색을 감지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모든 색깔을 감지하게 된다(Ibid., 41-42).

(2) 대체기능은 조직의 불구나 파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작용은 아니다. Merleau-Ponty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求心路에서 작용하는 힘”이 의적 압력에 직면하여 “임시변통적으로 수행하는”(improvise) 능동적 작용이다(Ibid., 39-40;70). 예를 들면, 풍뎅이는 다리의 일부가 절단된 후에도 다시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잘리고 남은 다리 부분과 脊體에 의한 새로운 운동은 단순히 종전의 운동을 기계적으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 운동은 새로운 様式의 운동, 또는 절단에 의해 제기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연성”에 대한, “하나의 해결을 뜻한다.” 풍뎅이의 새로운 운동은 그것이 접촉하는 표면의 상태에 따라 일어날 수도, 또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접촉표면이 매끄러울 경우, 풍뎅이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접촉표면이 거칠고, 따라서 절단된 다리로 표면 접촉이 용이 할 경우에 한하여, 풍뎅이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Ibid., 39-40).

또 어떤 동물은 오른발을 지배하는 중추신경을 부분적으로 절단하면, 왼발로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왼발을 완전히 절단시키면, 오른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한다. 다음에 오른발을 지배하는 중추신경을 완전히 절단하면, 필요에 따라, 예컨대 올타리밖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오른발을 계속 사용한다(Ibid., 40).

(3) 대체반사는 대체되는 반사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다만 근사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능을 대행한다(Ibid., 37-38). 이런 점에서 “대체행동은 신경현상의 기본적 수준에 머무를 뿐, 의식적 단계에 해당되는 반응의 유연성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Ibid., 39;70) Merleau-Ponty가 말하는 “우연성”은 지각현상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그는 지각과정을 일종의 “임시변통적” 과정으로 특징짓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지각된 색깔이나 위치 또는 말의 의미에 상응하는 생리적 과정은 지각되는 순간에 임시변통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must be improvised), 또 능동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Ibid., 88).

여기서 Merleau-Ponty가 말하는 “임시변통적 만들”(improvisation)이란 해부학적 보장 없는 계속적인 자기발명(self-invention)의 과정 또는 “암중모색”

(blind-recognition)을 뜻한다. 그것은 우연적 사물 가운데서 의미가 체화됨 (embodiment)이며, 지금까지 무의미했던 사물들이 이로 인하여 의미있는 “그릇”(envelope)으로 전환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체경의 예에서 보듯이, 두개의 인접한 수직선이 깊이를 갖는 형태로 지각되는 것은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내의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Ibid., 37;76). 지각된 말의 의미 역시, 공기 진동의 물리적 현상이나 두뇌에 장치된 특정한 부위의 작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Ibid., 92). 여기서 Merleau-Ponty는 “지각된 행동은 신경세포나 신경연접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지각적 행동은 “뇌 안에도 없고, 신체 안에도 없다.” 따라서 “지각의 신체적 토대를 구획짓는 것은 불가능하다.”(Ibid., 205) 이런 점에서 지각작용은 해부학적 보장이 없는 작용이다.

물론 지각작용은 최소한의 감각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각작용 그 자체는 이러한 감각적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이것은 무대 위에서 연출된 연극을 무대장치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과 같다. 지각현상의 감각적 요소는 말하자면 “하나의 인간적 드라마의 연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Ibid., 168).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지각작용을 생리적 작용도, 또는 논리적 과정도 아닌, “현상적 場의 고유한 표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초적 경험(original experience)이라고 본다.<sup>(6)</sup> 이것은 “意識狀態”(state of consciousness)의 결과로도, “思惟의 논리적 조작”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다(Ibid., 187)<sup>(7)</sup>. 실제는 그와 정반대이다. 즉 경험적 “의식상태”나 논리적 “사유”가 오히려 지각작용을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sup>(7)</sup>

Merleau-Ponty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든다. 첫째는 사물과 이것을 지각할 때의 시각적 측면과의 관계이다. 그에 의하면, “시각적 측면들과 이것들이 보여주는 사물과의 관계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로도 환원될 수 없다. …이것은 因果關係도 또는 함수와 이에 상응하는 변수 간의 관계도 아니다. 경험주의의 모든 문제점들은 이러한 원초적 관계를 인과작용으로 환원시키고, 지각을 자연 속에 통합시키려는 바로 그러한 시도로부터

(6) 반면 김재권 교수는 “우리가 천제하는 것은 단지 신념, 욕구, 감정, 지각과 같은 사건과 상태들이 존재한다는 것 뿐이”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앞의 책, p.176).

(7) Merleau-Ponty는 감각적 요소와 지각 현상 간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 아닌 “동시 발생적 관계”(concordant phenomena)이라고 말한다. p.217.

터 발생한다(Ibid., 193).

또한 “어린아이는 자신의 미소를 지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소가 담고있는 즐거움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 자신은 한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 따라서 자신의 경험 내용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위협적 또는 침울한 몸짓의 의미를 이해한다(Ibid., 156).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얼굴을 구성하는 안색이나 윤곽에 대한 지각 없이 미소를 지각할 수 있고 또 미소 안에 담겨있는 감정마저 지각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눈빛이나 머리칼의 색깔을 모르면서도 얼굴모양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다.”(Ibid., 166) Merleau-Ponty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적 의미가 보통 말하는 감각적 신호(sensible sign) 이전에 주어지”기 때문이다(Ibid., 167).

이와 같은 사실 즉 “인간적 의미”가 “감각적 표현”이전에 주어진다는 사실은 특히 “타인에 대한 지각”과 관련하여 중요한 뜻을 함축한다. 지각에 주어진 타인의 존재란 단순한 감각적 현상이나 다수의 경험적 요소들의 “덩어리”가 아니다. 타인에 대한 지각은 타인의 몸에 내재하는 일종의 선형적 의미를 지각함으로 획득된다. 여기서 Merleau-Ponty는 유기체의 살아있는 몸 즉 “현상적 몸”(phenomenal body)에는 감각적 요소로 분리될 수 없는 내재적 의미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현상적 몸의 몸짓과 태도는…하나의 고유한 구조, 하나의 내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Ibid., 157) “그 것은 의미의 통일체이며, 칸트적 의미의 현상이다.”<sup>(8)</sup> 그는 다시 이렇게 부연한다 :

…우리는 반사이론이 기초적 반사작용에 의해 산출하는데 성공시킨일이 없는 특정한 의미의 핵, 특정한 동물적 본질—즉 목적물을 향해서 가고, 먹이를 움키고, 먹으며, 장애물을 넘고, 피해가는 것 같은 동물적 본질— 또는 통일성 등이 현상적 유기체에 내재해있음을 발견한다(Ibid., 157).

그리고 Merleau-Ponty는 이러한 “의미의 핵”, “동물적 본질”, “통일성”에 대한 지각이 수동적-기계적 반사작용의 결과가 아닌, “임시변통적 만듦”과 “능동적 구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Merleau-Ponty는 “지각이 자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 (Ibid., 145;

(8) p.159.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의 “운동”에서도 나타난다. 동물이 특정 공간에서 움직일 때, “공간적 성격의 멜로디가 지속적 형태로 흘러나와서 여러 다른 감각적 영역에서 작용한다”; “운동의 의도”는 “처음에 하나의 핵으로 주어지며, 여기서부터 전체적 운동이 결과적으로 분화된다.” p.30

198), 즉 “지각된 것은 대뇌기능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의 의미”라는 것 (Ibid., 216) 따라서 자연적 현상처럼 설명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다만 “記述되거나 理解될 뿐”이라는 것이다(Ibid., 193;195;199;205;218). 또한 지각은 “존재” 또는 “있음”을 처음으로 일깨워주는 원초적 작용으로서 모든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기반은 될 수 있을지 인정, 그 반대일 수 없다는 것이다(Ibid., 196;212;218;224). 이런 점에서 “과학적 사유의 논리적 순서”는 “지각된 것으로부터 [경험적] 상관관계로 이행한다.” (Ibid., 156) 끝으로 이러한 지각작용은 한편으로는 “지각된 것은 오직 지각된 것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Ibid., 92)는 원초성을 뜻한다. 다른 한편 이것은 지각작용이 항상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모험”과 “우연성”을 뜻한다. Merleau-Ponty의 표현을 빌면, 지각이란 극히 빈약한 갑작적 소여를 토대로 수행되는 “암중모색”(blind recognition) (Ibid., 172)이며, 그것은 미정성과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각의 장에서”, 意味志向의 “의도를 폭발시킴이다.”(to make an intention explode in the phenomenal field) (Ibid., 189) 이런 점에서 MerleauPonty는 “지각의 철학이 삶 속에 기성품으로만 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천명한다.<sup>(9)</sup>

## VI

지금까지 Merleau-Ponty가 古典的 反射理論에 대해 제기한 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자극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이 움직이려는 근육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동일한 자극이라도 신체의 전체적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나타낸다; 셋째, 유기체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자극의 “속성”이 아니라 자극의 “행태”이다; 넷째, 신경계의 기능은 전체적이다; 다섯째,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특정 수용기의 반응구역은 해부학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하나의 유기적 조직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때로는 완전히 상반된 기능을 수행한다; 일곱째, 유기체는 우연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반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각현상에서도 나타난다.

Merleau-Ponty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각각의 반사가 각각의 폐쇄회로에

(9) p.219. Merleau-Ponty는 고전적 반사이론에 반대하여 지각과 행동간의 내적 관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각론으로 일단 끝맺고자 한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신경조직의 다양한 기능적 양식에 대응한다 는 것, 다시 말하면 각각의 신경부위(nerve regions)는 특정한 행동에 대 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형 또는 특정 수준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것 (Ibid., 20-21;72;207;216), 이것은 마치 건강한 망막의 半部에 새로운 中心 窩(fovea)가 구성되듯, 유기체의 기능은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을 창 출한다는 것이다(Ibid., 43). 이런 점에서 물리적 신체, 해부학적 신체 또는 생리학적 신체는 “모두가 [이와 같은] 기능적 신체의 추상화이거나 이것의 스냅사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Ibid., 205). 요컨대 유기체의 행동은 유기 체의 특정한 부위와 관련시켜 설명될 수 없다는 것, 궁극적으로는 가장 원 초적 현상인 지각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만약 행동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관찰된 반응을 특정한 부위의 신체기관과 직접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 경계의 전체적 상태가 유기체의 보존에 필요한 적극적 개입에 의존”(Ibid., 26)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 고 문 현

Merleau-Ponty, Maurice

1942 *The Structure of Behavior.*

김재원

1991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정신의 위치”[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 : 한·민족 철학자 대회 1991 대회보 1].